

Spectrosynthesis Seoul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

2026. 3. 20. - 6. 28.

A

ASJ C
SUNPRIDE
FOUNDATION

SJ

C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

2026. 3. 20. - 6. 28.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은 예술에서 시간과 공간, 제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위적 실천에 앞장서 온 퀴어 작가들과 퀴어성을 탐구해 온 작업들을 다층적으로 조망하는 전시다. ‘스펙트로신테시스’는 빛이 무지개색으로 분해되는 현상이자, 다양성을 의미하는 ‘스펙트럼(spectrum)’과 광합성처럼 아이디어와 사물을 한데 모으는 과정을 뜻하는 ‘신테시스(Synthesis)’를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전시는 동시대 퀴어 미술의 흐름을 ‘서울’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살피며, 한국의 주요 정치, 사회, 기술적인 변화와 그 긴장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온 퀴어미술의 지형을 추적한다.

이번 전시는 아트선재센터 전관을 ‘트랜지션의 공간’으로 확장하며, 기존의 전시장뿐 아니라 로비, 아트홀, 복도와 같은 이동 공간 및 유희 공간이 전시의 공간으로 새롭게 전환된다. 지하부터 1층까지 이어지는 전시는 ‘트랜스(trans)’의 개념을 새로운 몸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죽음과 변환의 계기로 해석하며, 작가들의 실험적인 신작 및 최근작을 보여 준다. 2층은 홍콩의 선프라이드재단(Sunpride Foundation)의 컬렉션 작가를 중심으로 국내외 퀴어 미술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작품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3층 전시는 ‘기억’, ‘장소’, ‘형식’이라는 세 축을 통해 한국의 퀴

어 미술이 새롭게 발생하는 현재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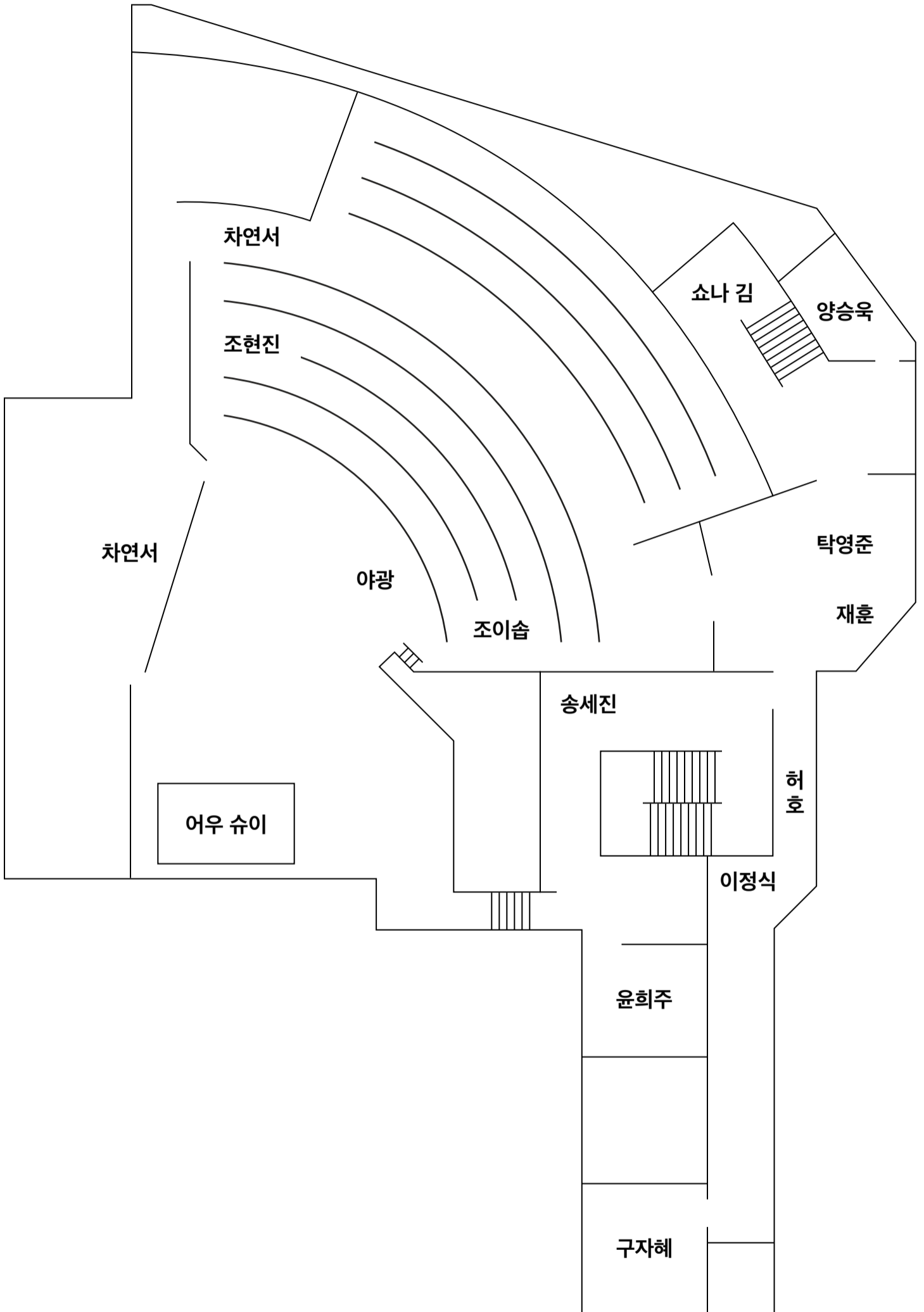
아트선재센터는 LGBTQ+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선프라이드재단과 협력하여, 74명(팀)의 작가가 참여하는 본 전시를 선보인다. 이는 대만, 태국, 홍콩에 이어 한국에서 소개되는 새로운 ‘스펙트로신테시스’ 전시로, 빛의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퀴어미술이 서울이라는 장소적-프리즘을 통과해 새롭게 교차하며 확장된다.

주최: 아트선재센터, 선프라이드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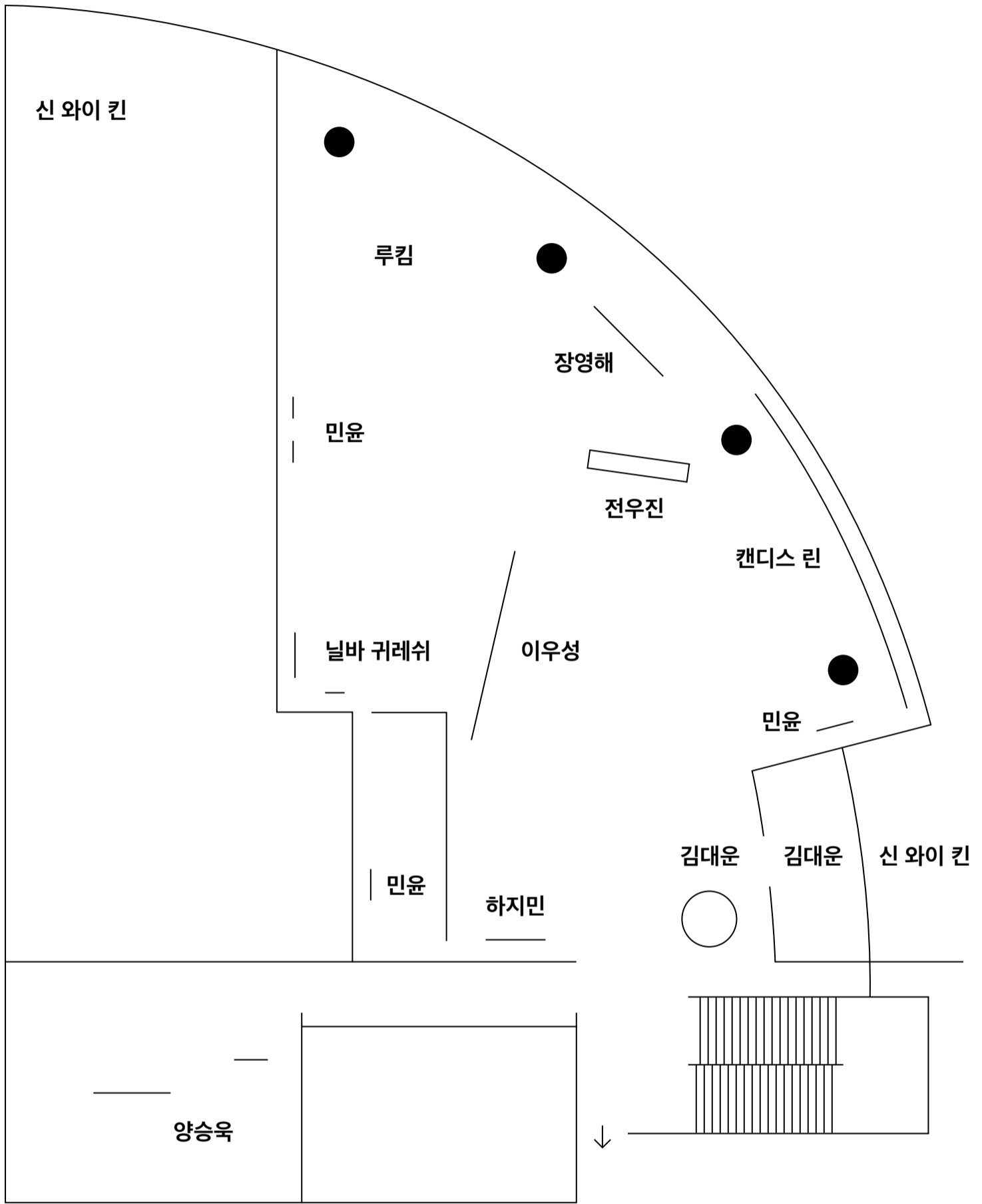
협력: 스페이스 포 컨템포러리 아트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B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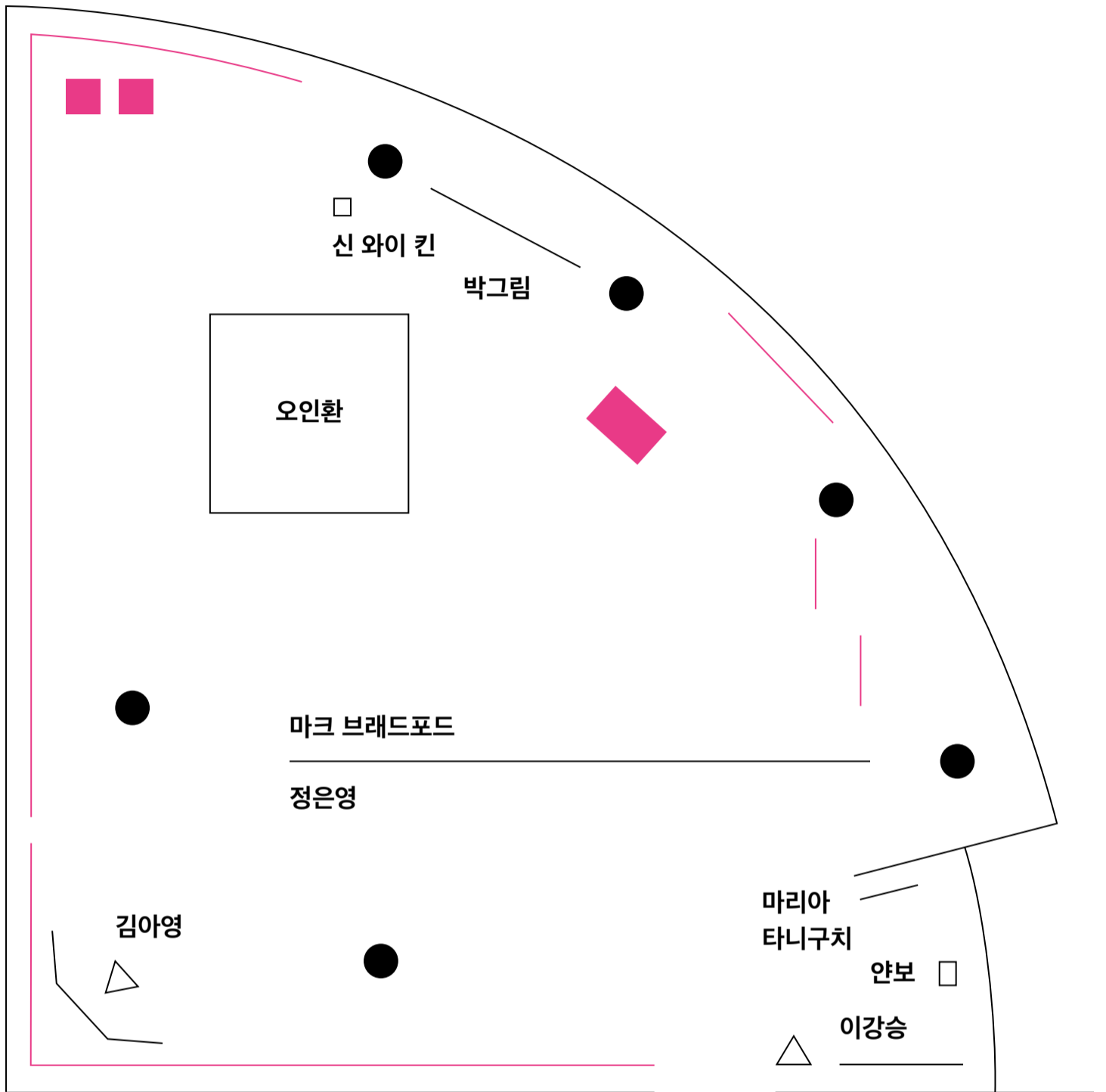


1F




 김무영

2F



— 선프라이드 재단 소장품

3F



퍼포먼스

아트선재센터는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와 연계해 퍼포먼스 작업을 선보입니다. 작가들은 전시 공간, 설치·조각·영상, 관객의 몸과 사회적인 맥락에 반응하며 사건을 만들고 이를 흐르는 시간속에서 공유합니다.

전우진	듀얼 니트	3/22, 3/28, 4/12, 4/19, 4/26	↗
구자혜	퇴장하는 등장	4/20, 4/27, 5/4	↗
이반지하	정상 가족 만들기	5/2	↗
이동현	언니와 하루	5/23, 5/30, 6/6	↗
루킴	전쟁, 개들, 그리고 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용기'에 관한 퍼포먼스	6/20, 6/21	↗

클릭 시 해당 작품의 소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듀얼 니트〉

전우진

2026, 2인 전기선 뜨개질 퍼포먼스,
VCTF 1.5sq 2C 흑색 연선, 알루미늄 대바늘

3. 22. 일 14:00

3. 28. 토 14:00

4. 12. 일 14:00

4. 19. 일 14:00

4. 26. 일 14:00

* 퍼포먼스는 지정된 시간에 시작되며,
러닝타임은 작가의 재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아트선재센터 더그라운드

〈듀얼 니트〉는 작가의 설치작품인 〈니트 400kg〉의 연계 퍼포먼스로, 작가와 한 명의 퍼포머가 전시장 한가운데 마주 앉아 약 100kg의 산업용 전기선을 함께 뜨개질한다. 8mm 전선 다섯 가닥을 움켜쥐고 온몸으로 엮어가는 동작은, 뜨개질을 수행이자 고강도의 노동으로 전환한다. 편물이 길고 무거워지는 동안 두 사람의 자세와 움직임도 그 무게를 감당하며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 강함과 약함의 구분이 움직이고 뒤바뀐다. 대상을 밀고 당기고 들어 올리거나 깔고 앉아 변형하는 동안, 두 사람은 오랫동안 붙들려 온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한 코씩 엮으며 풀어가는 시간을 공유한다.

〈퇴장하는 등장〉 구자혜

2026, 퍼포먼스, 40분
컨셉 및 연출: 구자혜
출연: 색자, 수키
타이포 그래픽: 로호타입
목소리: 수키
기술: 이효진
수어 통역: 명혜진

4. 20. 월 15:00, 17:00

4. 27. 월 15:00, 17:00

5. 4. 월 15:00, 17:00

아트선재센터 지하1층 아트홀, 로비, 복도, 여자화장실

토마스는 선생님에게 뺨 열대를 더 때리라고 한다.
재스민이 되려 하는 미래의 찰스를 대신해서다.
그리고 찰스에게 말한다. “찰스, 뺨을 맞지 않고 사는
게 삶의 전부가 될 순 없더라.”
이 말은 70세 트랜스 여성 색자의 1인극의 제목 〈“뺨
을 맞지 않고 사는 게 삶의 전부가 될 순 없더라”〉가
된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대신해 맞고, 말하고, 서 있는
그 장면처럼, 색자의 몸은 타인의 시간과 기억을 가로
지르며 출현한다. 그는 아트선재센터 지하 1층 복도를
지나,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사이에 잠시 침묵으
로 머물다가, 음성과 텍스트로 가득 찬 여자 화장실에
이른다. 작가는 이 몸의 이동을 통해, 누가 어떤 장소에

서 등장할 수 있는지, 또 어디로 퇴장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드러낸다. 말 사이로 들어온 그 몸은 완전히 읽히지 않은 채로 서 있다. 이러한 ‘읽히지 않음’ 속에서 지워졌던 존재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 퍼포먼스는 등장과 퇴장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존재가 승인되거나 배제되는 조건을 조용히, 또 천천히 흔든다.

예약 [기](#)

A

SJ

C

〈정상 가족 만들기〉 이반지하

2023/2026, 강연 퍼포먼스, 60분

컨셉 및 연출: 이반지하

퍼포머: 이반지하

5.2. (토) 18:00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2023년 7월 15일 울산 남목도서관에서 예정되었던 이반지하의 강연은 보수 기독교 단체의 민원으로 취소 위기에 처했다. 이에 퀴어 공동체 일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도서관 측은 ‘퀴어’, ‘젠더’, ‘동성애’라는 키워드를 제외한 강연을 진행하라는 ‘중립적 타협안’을 제시했다. 작가는 이러한 모순적인 조건을 적극 수용해, 이를 『이웃집 퀴어 이반지하』(2021)의 저자 특별 강연이라는 형식을 차용한 반어적인 퍼포먼스로 전환한다. 강연에서 작가는 ‘정상성 강사’로 분장해 ‘정상 가족’, ‘정상 사회’,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방법과 비전을 제시한다. 이 작업은 ‘정상성’, ‘가족’, ‘남녀 이분법’과 같은 규범을 전수하는 시민 교육의 형식을 낯설게 비틀며, 퀴어 존재를 반대하는 혐오 세력과 이반지하의 작업을 지지하는 이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강연을 소화하고, 즐거움을 얻게 만든다. 작업은 작가 특유의 유머와 퀴어 미학을 통해 이질적인 공동체의 공존을 발생시킨다.

예약 거

A

SJ

C

〈언니와 하루〉

이동현

2026, 퍼포먼스, 30분

연출: 이동현

출연: 이동현, 이하령, 하지민

5. 23. (토) 18:00

5. 30. (토) 18:00

6. 6. (토) 18:00

아트선재센터 스페이스 2

〈언니와 하루〉는 움직이는 케이지와 야생의 고양이 하루, 어떤 언니가 등장한다. 인물들은 케이지를 접거나 펼치며 노동자로, 때론 고양이로, 때론 주인으로, 때론 관객으로 상태를 바꾸며 공간 주변을 서성인다. 우리 안 고양이와 우리 밖 주인은, 안팎을 연결하는 통로를 사이에 두고 주문과 수행의 피드백을 반복한다. 케이지의 12각형의 구조, 하루 12시간을 따라가는 시침. 고양이는 통로로 연결된 주인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먹고, 마시고, 놀라고, 기지개를 켜고, 싸고, 외치고, 아양을 떨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시야가 차단된 내부 시선과 실루엣을 파악하는 외부 관찰자의 시선은 공존하며, 역동적인 관계를 생성한다.

예약 [개](#)

A

SJ

C

〈전쟁, 개들, 그리고 피: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용기’에 관한 퍼포먼스〉
루킴

2025-2026, 퍼포먼스, 40분

작가 및 연출: 루킴

퍼포머: 추후 공개

음악: 아르투르 피스팔랴스

라이브 음악 퍼포먼스: 이원석 (setsetset)

사운드조형: HEXXX

프로덕션 자문: 샘 블루멘펠드, 시모네 프란지, 이지연, 카티아 슈빌러

기술 자문: 엘리엇 우즈

6. 20. (토) 18:00

6. 21. (일) 18:00

아트선재센터 정문, 한옥정원, 더그라운드

이 작업은 생태적 재앙의 시대에 ‘용기’의 의미를 되새긴다.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희곡 〈억척 어멈과 그 자식들〉(1939)에 등장하는 ‘억척 어멈 Mother Courage’과 애니메이션 시리즈 ‘겁쟁이 강아지 커리지 Courage the Cowardly Dog’(1999-2002)는 모두 ‘용기’라는 이름이 붙은 가상의 인물들이다. 작가는 이 두 캐릭터를 출발점 삼아, 동물과 식물,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를 엮어 낸 새로운 존재를 상상한다. 이 존재들은 식민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저항하며, 억압의 질서에 맞선 복수를 꿈꾼다. 이를 위해 작가는 학생과 지도자의 관계를 개와 주인과의 관계에 병치함으로써, 위계적 구조를 드러낸다. 이를 위해 서울의 대학생들을 워크숍에 초대하고, 참여자들은 퍼포먼스 제작

과정에서, '용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작업을 집단적으로 재구성해 나간다.

[예약하기](#)**A****SJ****C**

토크 프로그램

아트선재센터는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과 연계해 참여 작가, 사회학자, 문학평론가, 미술사학자 등이 참여하는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작가와 연구자들의 다층적인 시선이 교차하며, 전시의 담론을 입체적으로 확장합니다.

B, BB, 3B, 4B, 5B..., 호기심 많은 까마귀의 정치적 풍경	3/20	↗
4+1 이야기들	3/20	↗
‘텐더: 언제든 어디서든’ 연계 토크: 취약성과 연대의 퀴어 정치학	3/20	↗
가늠과 어긋남: 신체, 정동, 판정의 조건들	3/28	↗
2010년대 이후 퀴어미술의 흐름	4/9	↗
역사 없는 이들의 웅얼거림	4/16	↗
〈병든 서울〉(2026)을 구성하는 ‘퀴어한’ 정치	4/30	↗
한국 퀴어미술의 조건	5/16	↗
사각지대 찾기	5/21	↗
구멍을 기록하기—퀴어 커뮤니티의 신체와 정동 아카이브	5/28	↗
퀴어링의 두 예시	6/11	↗
다공성과 불투명성의 퀴어 퍼포먼스	6/18	↗
살-결을 상상하기	6/25	↗

클릭 시 해당 작품의 소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B, BB, 3B, 4B, 5B...」,
 「호기심 많은 까마귀의 정치적 풍경」
 민윤(작가), 어우 슈이(작가)

3.20. (금) 12:00-13:30

아트선재센터 내

본 프로그램은 90분 내 두 작가가 각자의 작업을 소개하는 릴레이 토크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윤은 현재 비엔나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드로잉·회화·조각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술과 생산성을 둘러싼 조건과 구조를 탐구해 왔다. 이번 작가와의 대화 「B, BB, 3B, 4B, 5B...」에서 한국과 미국의 학교와 도서관에서 열람이 제한·금지된 동화책에서 시작해 기초적인 미술재료로 구성된 신작과 또한 맥락이 이어지는 초기 전시 《Boys Be》를 함께 소개하고 최근 신작 제작 과정이 이뤄졌던 작업실 기록 《Working Title: My Real Online Viewing Room》을 살펴볼 예정이다. 어우 슈이의 아티스트 토크 「호기심 많은 까마귀의 정치적 풍경」은 세계 사이를 오가는 전령인 ‘호기심 많은 까마귀’의 이야기와 여정을 통해, 말레이 제도과 그 주변에 숨겨진 ‘풍경’의 변화를 다룬다. 나아가 전시 작품의 맥락과 형식을 살펴봄으로써 식민지화의 영향력 있는 흔적들, 정체성 정치의 변화와 그 이면, 포함과 배제 그리고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권력 작용, 그리고 국가라는 체제가 지닌 연극적 스펙트럼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4+1 이야기들」
리밍웨이(작가),
김종우(카네기 멜런 대학 교수)

3. 20. (금) 14:00-15:30
아트선재센터 내

리밍웨이의 참여형 작품과 퍼포먼스는 수선하기, 쓸기, 노래하기와 같은 일상의 몸짓을 신뢰와 주목, 그리고 돌봄을 향한 조용한 초대장으로 변화시킨다. 이번 토크에서 작가는 초기 프로젝트인 〈예술을 위한 돈 (Money for Art)〉부터 그의 대표작인〈수선 프로젝트 (The Mending Project)〉, 〈우리의 미로(Our Labyrinth)〉, 그리고 〈소닉 블로섬(Sonic Blossom)〉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예술 실천을 공유한다. 이어서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비평 이론 및 미술사 교수인 김종우 박사와 대담을 나누며, 관객과의 질의응답(Q&A)으로 마무리된다.

「‘텐더: 언제든 어디서든’
연계 토크: 취약성과 연대의 퀴어 정치학」
김재원(작가), 이반지하(작가),
이용우(홍콩중문대학교 교수/큐레이터)

3. 20. (금) 16:00-17:30
아트선재센터 내

퀴어 아카이브와 사회적 몸이라는 영역을 가로지르는 김재원, 이반지하를 만난다. 이반지하는 계엄과 저항을 다룬 대형 역사화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살아 있다는 것 2025>를 통해 주변화된 존재들의 서사를 ‘생존의 아카이브’로 구축한다. 김재원은 <흔적을 품은 몸들>과 <체온>에서 크루징과 HIV/AIDS 담론을 통해 퀴어 공동체의 복합적 욕망과 생명정치의 감각적 구조를 탐구한다. 이번 토크에서는 두 작가의 실천이 구성하는 퀴어한 시간성과 관계성,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취약성과 연대의 정치학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가능과 어긋남: 신체, 정동, 판정의 조건들」
김무영(작가), 하지민(작가),
김영란(퍼포먼스 연구자)

3. 28. (토) 16:00-17:30

아트선재센터 내

스포츠의 판정과 의학의 진단은 몸을 측정하고 분류하며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를 설정한다. 하지민의 〈어긋난 관절과 소녀처럼 달리기〉은 스포츠에서 검사·수치·규정의 언어로 가능되고 판정되는 트랜스 운동선수의 몸과 경험을 따라간다. 김무영의 〈누운〉은 사육장을 본뜬 병상 구조를 설치로 구현하여, 질병의 진단과 그에 동반되는 보호와 감시를 감각적으로 환기한다. 이 토크는 두 작업에서 드러나는 가능의 순간에 발생하는 미묘한 어긋남을 따라가며 신체와 정동이 판정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위치 지어지는지를 논의하고, 그 틈에서 어떤 다른 감각과 관계가 가능해지는지를 함께 모색한다.

「2010년대 이후 퀴어미술의 흐름」
남웅(미술평론가)

4. 9. (목) 18:00-19:30
아트선재센터 내

2010년 이후 국내에서 퀴어를 주제로 삼은 주요 기획 전시들을 살펴본다. 왜 2010년을 기점으로 삼는지, 왜 퀴어 미술인지 질문하며 그간 시도해 온 퀴어 예술 실천의 특정성과 확장 가능성을 짚는다. 인정과 반목, 드러냄과 드러낼 수 없는/못하는 것들 사이의 긴장을, 나아가 재현과 반재현, 서사와 비서사의 시간성을 이야기 나누며 퀴어 커뮤니티의 역동과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화두를 논하고 퀴어 예술 실천의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한다.

「역사 없는 이들의 웅얼거림」 서동진(문화평론가)

4. 16. (목) 18:00-19:30

아트선재센터 내

동성연애에서 퀴어까지 누군가 ‘이쪽’이냐고 묻는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쪽에 사는 자들은 그렇게 자신을 식별하며 자신들을 동일한 사회집단으로 만들어주는 상징과 의례, 관념을 만들어왔다. 그것은 차별과 부정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고, 자신의 삶 속에 깃든 쾌락과 희망을 표시하는 실천이었다. 우리는 동성연애에서 글로벌 퀴어까지 그리고 다시 포스트-퀴어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을 추적한다. 그리고 이를 성소수자 유토피아 정치의 변모, 게이해방운동에서 오늘날의 정체성 정치에 이르는 궤적을 교차한다. 이는 역사 없는 이들이 얼마나 역사의 무게 속에 놓여있었는지 사유하기 위함이다.

「〈병든 서울〉(2026)을 구성하는 ‘퀴어한’ 정치」 정은영(작가)

4. 30. (목) 18:00-19:30

아트선재센터 내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에서 처음 공개하는 정은영의 신작 〈병든 서울〉은 1945년에 시인 오장환(1918~1951)이 쓴 동명의 시에서 착안했다. 해방공간의 혁명적 정동과 풍경을 담아낸 오장환의 시처럼, 이 작품은 ‘내란’과 ‘광장’을 잇는 현재의 저항과 정치를 소구하는 급진적 실천으로서의 퀴어를 주장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작가는 작업을 둘러싼 여러 층위들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나아가 퀴어미술의 존재론과 정치학의 비판적 독해를 시도한다.

「한국 퀴어미술의 조건」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공동주최), 정은영(작가),
양승욱(작가), 남웅(미술평론가), 김여명(기획자)

5. 16. (토) 15:00-18:00

아트선재센터 내

본 라운드테이블은 한국이 ‘글로벌한 국가’로 호명되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퀴어 미술이 실제로 어떤 국내적 조건과 제약 아래에서 생산·전시·비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추상적인 이론화보다는,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전시되고 어떤 부분이 수정·삭제되며, 어떤 맥락이 번역되거나 탈락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한 한국’이라는 이미지 뒤에 가려진 국내 퀴어 미술의 실제 작동 조건과 동시대적 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사각지대 찾기」 오인환(작가)

5.21. (목) 18:00-19:30
아트선재센터 내

2014년, 작가는 자율적 주체의 표현으로서의 미술과는 구분되는 나의 미술 실천을 ‘문화적 사각지대’로 규정했다. 이는 주류 문화가 허용하지 않는 타자화된 삶과 욕망이 실현될 수 있는 대안적 영역을 탐색하는 작업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지난 30년간 진행해 온 다양한 프로젝트를 ‘문화적 사각지대 찾기’라는 관점에서 되짚으며, 작가의 미술이 어떻게 주변화된 감각과 삶의 가능성을 모색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멍을 기록하기—퀴어 커뮤니티의
신체와 정동 아카이브」

박민영(미술작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상근활동가), 김대현(역사학자), 오혜진(문학평론가)

5. 28. (목) 18:00-19:30

아트선재센터 내

퀴어인권운동단체가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소식지’
는 일종의 조형적 기록물이자 퀴어 정동의 아카이브
로서 독해될 수 있다. 구술 인터뷰, 글, 사진, 영상 등 다
양한 질료로 구성되는 이 아카이브는 곧 도래할 퀴어
공동체의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몸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이 자리에서는 ‘퀴어/인권운동/공동체/아카이
브’의 키워드를 통해 소수자의 신체와 역사를 기록하
는 일의 정치적·미학적 의미를 질문해본다.

「퀴어링의 두 예시」
김경렴(작가), 이우성(작가), 양효실(미학자)

6. 11. (목) 18:00-19:30
아트선재센터 내

화가인 나는 언제 퀴어이고, 어떻게 퀴어인가?
굳이 맥락-내용과 구성-형식이란 해묵은 이분법을 갖
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퀴어적 삶과 퀴어적 화면 구성 사이의 그 많은 틈들-
가능성들-탈주선들에 대해.

「다공성과 불투명성의 퀴어 퍼포먼스」
루킴(작가), 이동현(작가), 윤수련(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6. 18. (목) 18:00-19:30

아트선재센터 내

관객은 퀴어 퍼포먼스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더 나아가 퀴어 퍼포먼스는 관객으로부터 무엇을 요청하는가? 신체 움직임, 전자음악, 영상 협업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통해 젠더화, 인종화된 신체의 힘과 취약성 사이의 모순적 관계를 탐색하는 이동현, 루킴은 퍼포머가 관객과 긴장감을 형성하고 시선을 교환하며 정동적 반응을 공유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토크에서는 루킴, 이동현의 신작을 중심으로 퀴어 퍼포먼스의 이 같은 다공성과 불투명성을 살피고, 각자의 작업에서 퍼포먼스라는 형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법론이자 시각정치로 기능하는지 질문한다.

「살-결을 상상하기」
윤정의(작가), 허호(작가),
하상현(아트선재센터 큐레토리얼 어시스턴트)

6. 25. (목) 18:00-19:30

아트선재센터 내

윤정의는 작업실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육체를 바라보는 관능적인 시선과, 시간에 따라 변형되는 파편적인 조각성을 탐구해 왔다. 허호는 정상적인 커뮤니티 밖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의 성적·정서적 경험을 회화의 살결로 옮긴다. 두 작가는 잘리거나 터져 나온, 엉기거나 맞닿은 살을 통해, 개인과 타인, 관계와 공동성을 상상한다. 막 혼자만의 벽장에서 나온 이들의 상상은 이상적이기보단, 서로를 상처 입히고 이내 외로운 공간으로 돌아가길 반복하는 어딘가 이상한(queer) 모습이다. 이번 토크는 두 작가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특정한 몸과 타인을 향한 욕망이 어떻게 조각과 회화의 물성으로 변환되는지 살펴본다. 또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살점’으로부터 타자와의 관계를 상상하는 방식과, 그 관계가 실패하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
2026. 3. 20. - 6. 28.

주최: 아트선재센터, 선프라이드재단
협력: 스페이스 포 컨템포러리 아트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 김선정, 이용우

공간 조성: 샴푸
설치: 다산아트, 샴푸
미디어 장비 설치: 멀티텍,
가제트네트웍스
시트 작업 시공: 나무커뮤니케이션
운송: 다산아트, 브링스, 주은특송,
한국아트
미술품 상태 조사: artC&R
그래픽 디자인: 워크스
홍보: wh-bn
사진: 남서원
영상: 이의록

아트선재센터
예술감독: 김선정
전시팀장: 조희현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남서원
큐레토리얼 어시스턴트: 김소현
경영운영지원팀장: 이미선
에듀케이터: 김현미
어시스턴트 에듀케이터: 김윤지
시설관리부: 문현성, 윤재일
인턴: 클라리스 페르베이크

선프라이드재단
총괄 디렉터: 패트릭 선
운영 총괄: 엠마누엘 주완 시에
프로그램 매니저: 리 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해리 호 인 링
콘텐츠 코디네이터: 션 창
이벤트 매니저: 록키 푸
레지스트라: 코니 윙

스페이스 포 컨템포러리 아트

대표이사: 최수영

실장: 이미경

큐레토리얼 어시스턴트: 하상현

Spectrosynthesis Seoul
March 20–June 28, 2026

Spectrosynthesis Seoul is an exhibition that offers a multilayered perspective on LGBTQ+ artists and artists exploring queerness in their work who have led avant-garde practices across temporal, spatial, and institutional boundaries. The term “Spectrosynthesis” is a portmanteau combining the words *spectrum*—the phenomenon of light dispersing into the colors of the rainbow and a symbol of diversity—and synthesis, which refers to the process of bringing together both ideas and objects, much like photosynthesis. The exhibition examines the currents of contemporary queer art while tracing the topography of queer art in Korea—particularly in Seoul—as it has formed amid the country’s significant political, social, and technological transformations, and the tensions within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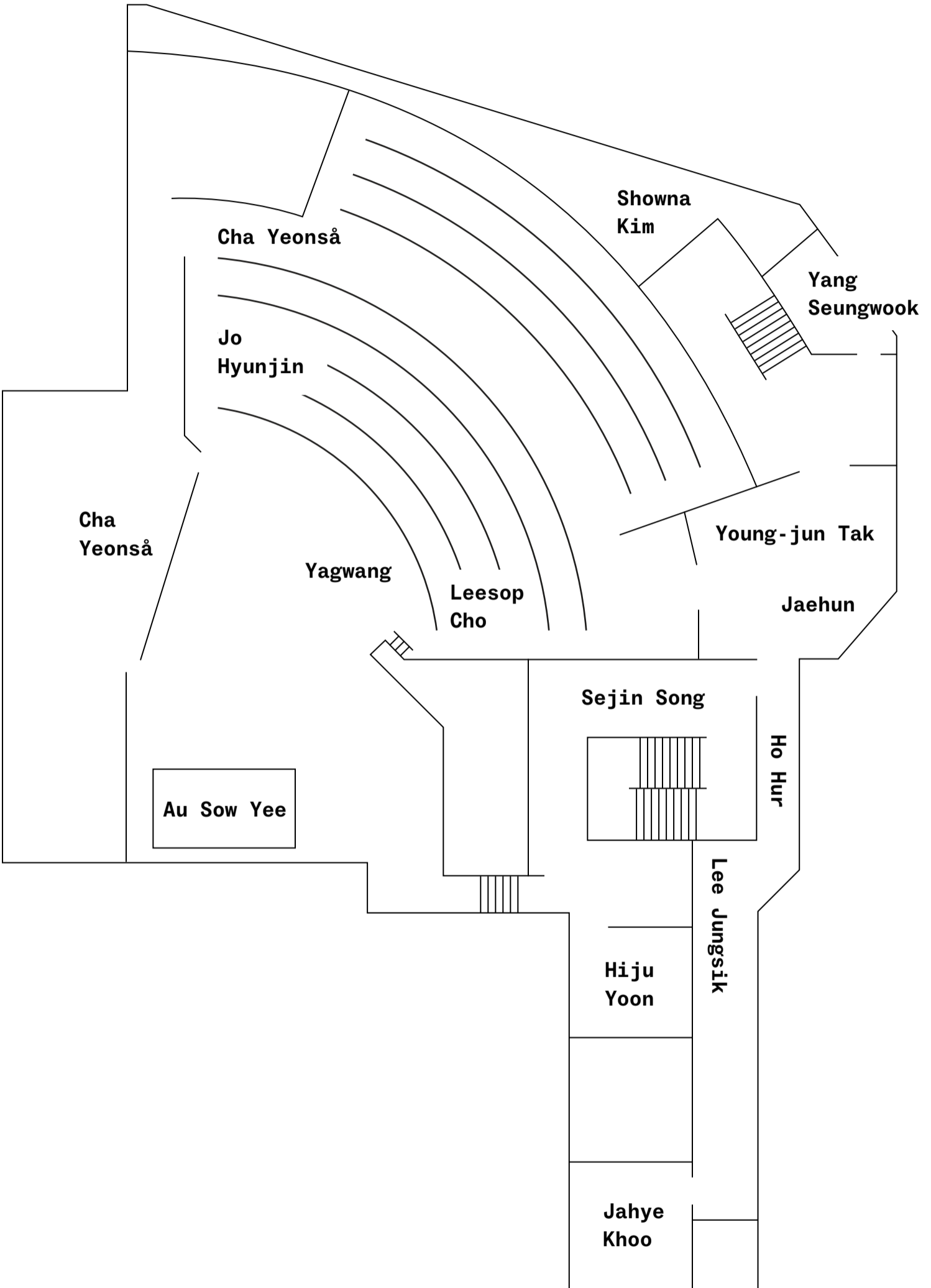
This exhibition expands Art Sonje Center in its entirety into a space of transition, newly transforming not only the conventional galleries but also the lobby, art hall, corridors, and other in-between or unused areas into new exhibition sites. From the basement to the first floor, the exhibition interprets the concept of “trans” as a catalyst for death and transformation arising through encounters with new bodies, and features experimental new commissions alongside recent works. The second floor primarily highlights artists from the collection of Hong Kong’s Sunpride

Foundation as it introduces key works through which visitors can explore the history of queer art both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Finally, the third floor of the exhibition focuses on the ever-emerging present of Korean queer art through three distinct themes: memory, place, and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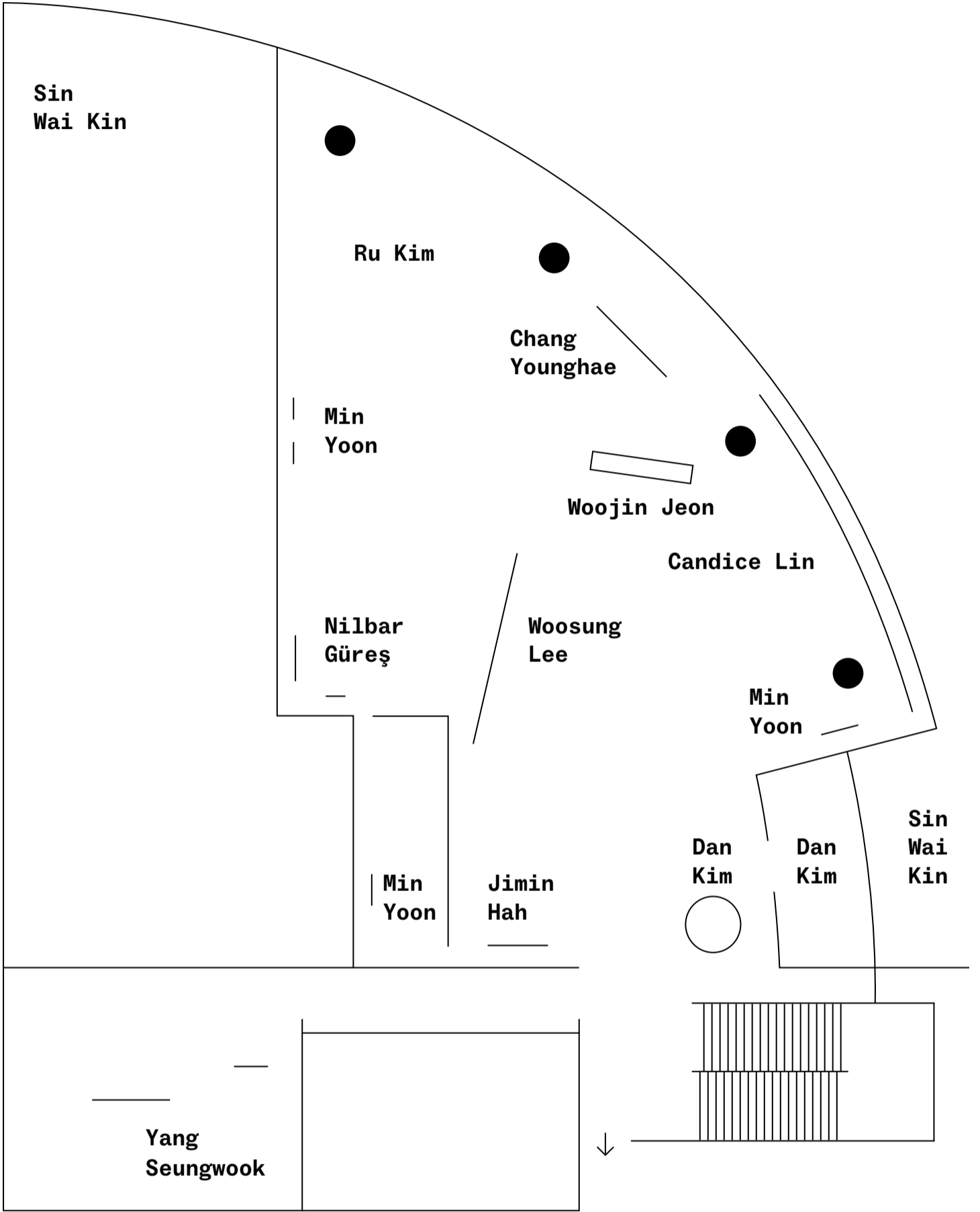
In collaboration with Sunpride Foundation, which was established to support LGBTQ+ people and their allies, Art Sonje Center presents this exhibition featuring seventy-four participating artists/artist teams. Following similar exhibitions held in Taiwan, Thailand, and Hong Kong, this new iteration of *Spectrosynthesis* in Korea allows diverse queer artistic practices—like a spectrum of light—to intersect and expand anew as they pass through the site-specific prism of Seoul.

Organized by Art Sonje Center with Sunpride Foundation
In collaboration with Space for Contemporary Art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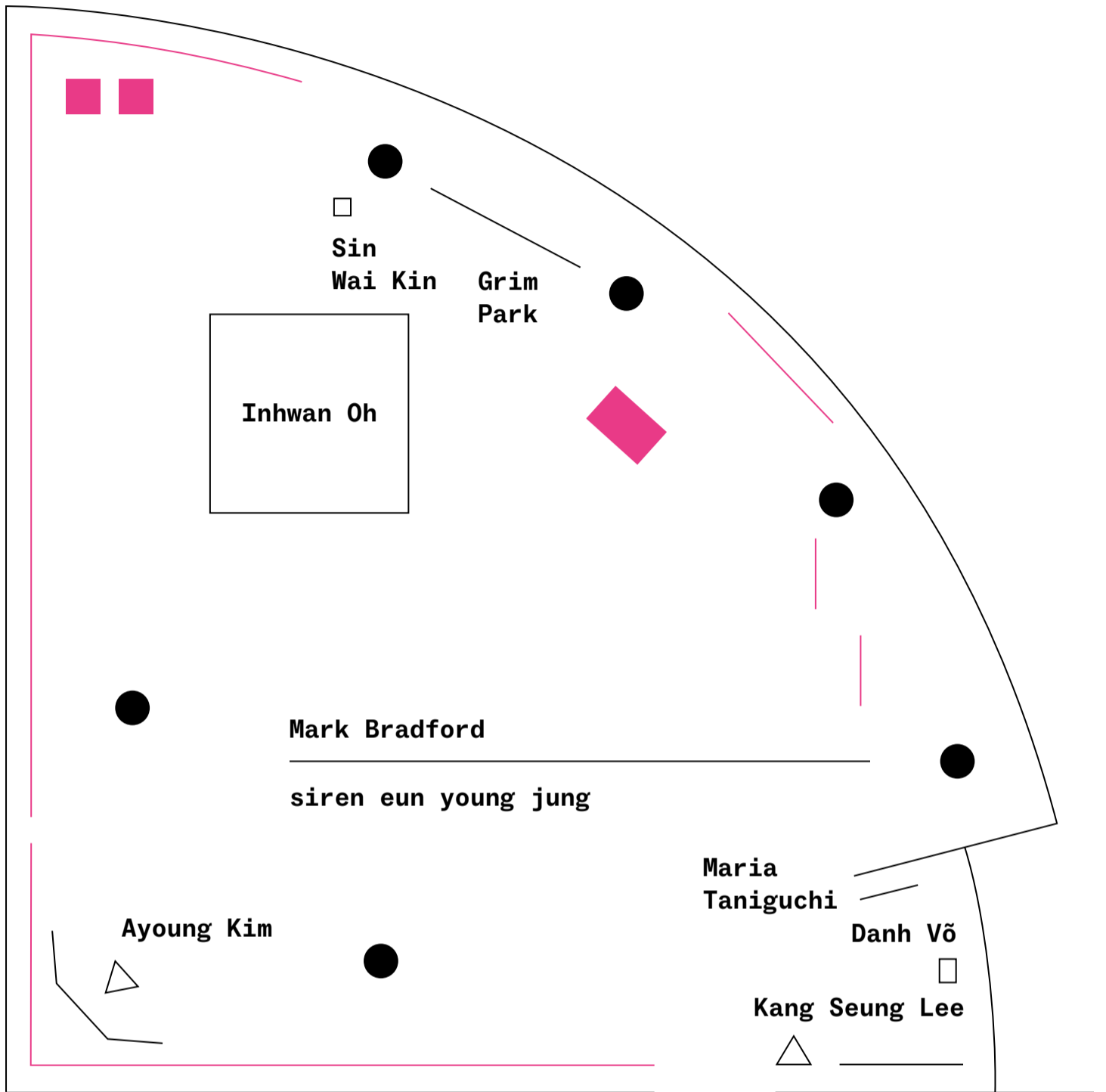
B1F



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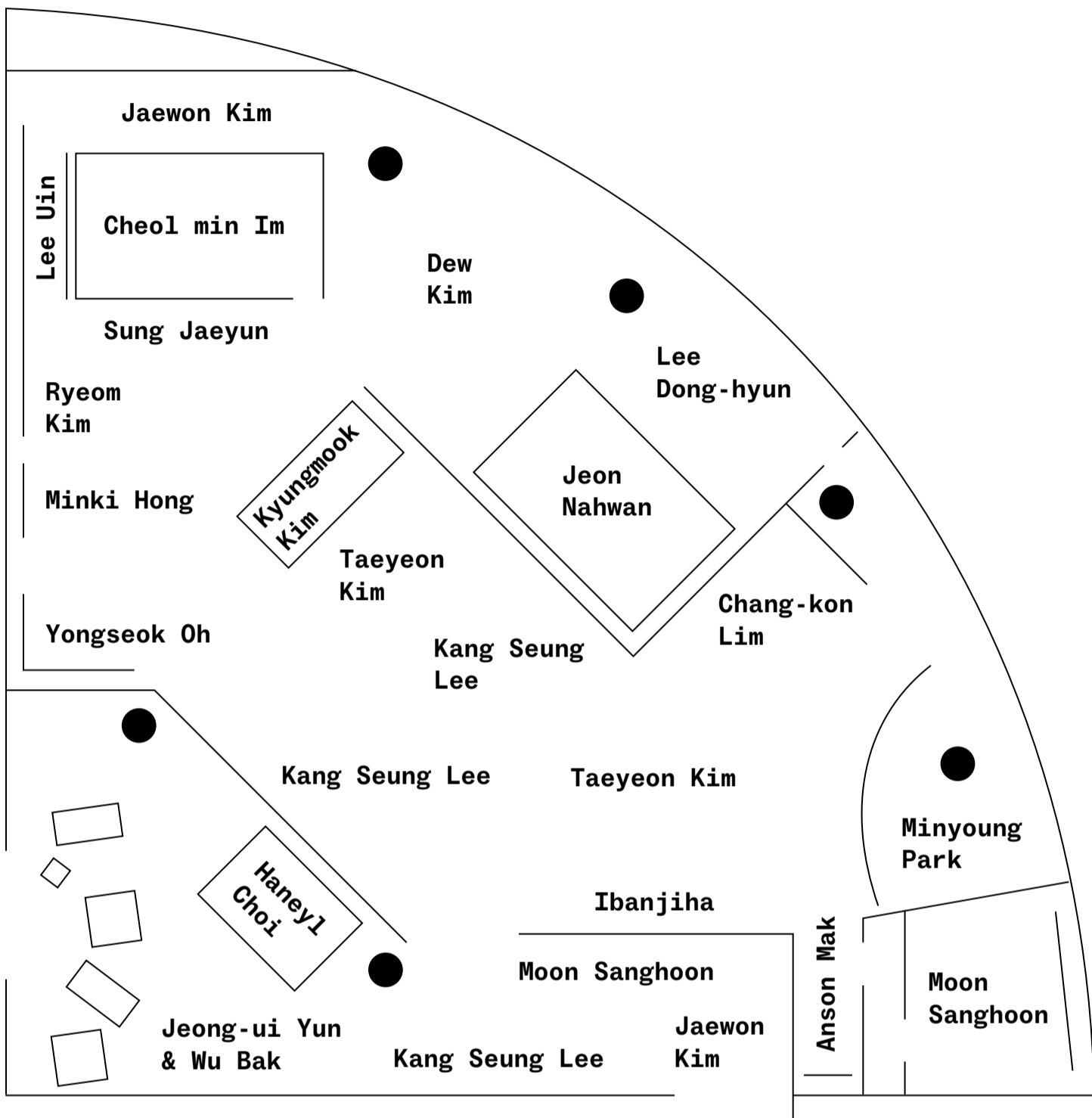


2F



— Sunpride Foundation Collection

3F



PERFORMANCE

Art Sonje Center presents a series of performance works in conjunction with *Spectrosynthesis Seoul*. Responding to the exhibition space—as well as to installations, sculptures, video works, audience bodies, and broader social contexts—artists create events that unfold and are shared over time.

Woojin Jeon	<i>Dual Knitting</i>	Mar 22, Mar 28, Apr 12, Apr 19, Apr 26	↗
Jahye Khoo	<i>Exi(s)t Strategy</i>	Apr 20, Apr 27, May 4	↗
Ibanjiha	<i>The Making of a “Normal” Family</i>	May 2	↗
Lee Dong-hyun	<i>A Day with Haru</i>	May 23, May 30, Jun 6	↗
Ru Kim	<i>A performance about Courage in three chapters: War, Dogs, and Blood</i>	Jun 20, Jun 21	↗

클릭 시 해당 작품의 소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DUAL KNITTING

Woojin Jeon

2026, two person electrical cable knitting performance,
VCTF 1.5 sq 2C black cable,
aluminium knitting needles

Sun, Mar 22 at 14:00

Sat, Mar 28 at 14:00

Sun, Apr 12 at 14:00

Sun, Apr 19 at 14:00

Sun, Apr 26 at 14:00

* The performance will begin at the scheduled time,
and the duration may vary at the artist's discretion.

The Ground, Art Sonje Center

Dual Knitting is a performance associated with the artist's installation *Knit 400 kg*. Woojin Jeon and a performer sit across from each other at the gallery's center and knit approximately 100kg of industrial electrical cable. Gripping five strands of 8 mm cable and intertwining them with their entire bodies, they transform knitting into both a meditative practice and an act of intense labor. As the knitted mass grows longer and heavier, their postures and movements transform to cope with the weight. In the process, the divisions between the industrial and the corporeal, and between the strong and the weak end up shifting and inverting. As they push, pull, raise, and sit on the material, the two performers share a process of binding and unraveling long-held, unresolved issues, one stitch at a time.

EXI(S)T STRATEGY

Jahye Khoo

Concept & Director: Jahye Khoo

Performer: Saekja, Sooki

Typography: rojotype

Voice: Sooki

Exhibition Technician: Hyojin Lee

Sign Language Interpreter: Myung Hye Jin

Mon, April 20 at 15:00 / 17:00

Mon, April 7 at 15:00 / 17:00

Mon, May 4 at 15:00 / 17:00

Art Hall, Lobby, Corridor, B1F Women's toilet, Art Sonje Center

Thomas asks his teacher to slap him ten more times. This is on behalf of the future Charles, who hopes to become Jasmine.

He then says to Charles, "Charles, living without being slapped cannot be all there is to life."

The line becomes the title of a monodrama by Saekja, a 70-year-old trans woman: *"You can't make a life out of not getting slapped in the face"*

Much like the scene in which one person is slapped, speaks, and stands in place of another, Saekja's body appears across others' times and memories. The body moves through the corridor on Art Sonje Center's first basement level, lingering in brief silence between the men's and women's toilets before arriving in the women's space, where voices and texts fill the room. Through this movement, the artist shows who is permitted to appear in which spaces and from which they are made to withdraw.

The body that enters amid the words stands there without being fully read. Within this “unreadability,” erased presences emerge once more. Taking place in a setting where entrances and exits intersect, the performance quietly and gradually destabilizes the conditions that authorize and exclude presence.

[Reservation ↗](#)

A

SJ

C

THE MAKING OF A “NORMAL” FAMILY

Ibanjiha

2023/2026, lecture performance, 60 min

Sat, May 2 at 18:00
Art Hall, Art Sonje Center

Ibanjiha, the author of *Ibanjiha, a Queer Nextdoor* (2021), was scheduled to deliver a talk at Nammok Library in Ulsan on July 15, 2023, only to face cancellation due to complaints from conservative Christian groups. This triggered an intense outcry from the queer community, leading the library to suggest a “neutral compromise”: the talk could proceed only if the words “queer,” “gender,” and “homosexuality” were excluded. The artist accepted these contradictory conditions, transforming the talk event into an ironic performance titled *The Making of a Normal Family*. Disguised as a “normalcy speaker,” the artist shared a vision for building a “normal family,” a “normal society,” and a “normal Republic of Korea.” The work offers a defamiliarizing spin on the civic education formats used to enforce norms regarding family and gender roles. The performance creates a space where both those who oppose queer existence and the supporters of Ibanjiha can engage in their own ways, using the artist’s distinctive humor and queer aesthetic to facilitate an unlikely coexistence between disparate communities.

[Reservation ↗](#)

A DAY WITH HARU

Lee Dong-hyun

2026, performance, 30 min

Directed by Lee Dong-hyun

Performed by Lee Dong-hyun, Haryung Lee, Jimin Hah

Sat, May 23 at 18:00

Sat, May 30 at 18:00

Sat, June 6 at 18:00

Space 2, Art Sonje Center

A Day with Haru features a moving cage, a wild cat named Haru, and a certain eonni (older sister). As they fold and open the cage, the characters shift roles and physical states, becoming workers, cats, owners, and viewers as they wander through the space. The cat inside the cage and the owner outside it repeat a feedback loop of command and response through the passage connecting the inside and outside. The cage has a dodecagonal structure, with a clock hand that tracks the twelve hours of the day. Responding to its master's voice through the passage, the cat spends time alone—eating, drinking, reacting with surprise, stretching, relieving itself, crying out, and acting cute. A dynamic relationship emerges as the obstructed internal perspective coexists with the outside observer's perspective, which perceives only silhouettes.

[Reservation ↗](#)

*A PERFORMANCE ABOUT COURAGE IN THREE
CHAPTERS: WAR, DOGS, AND BLOOD*

Ru Kim

Artist & Director: Ru Kim

Performance: TBD

Music: Artur Pispalhas

Live music performance: WON (setsetset)

Sound sculpture: HEXXX

Production advisory: Sam Blumenfeld, Simone Frangi, Jieon Lee,

Katia Schneller Technical advisory: Elliot Woods

Technical advisory: Elliot Woods

Sat, Jun 20 18:00

Sun, Jun 21 18:00

Main entrance, Hanok Garden, The Ground, Art Sonje Center

This work reflects on the meaning of “courage” in an era of ecological catastrophe. Mother Courage, the title character of Bertolt Brecht’s play *Mother Courage and Her Children* (1939), and *Courage the Cowardly Dog*, the protagonist of the animated series of the same title (1999–2002), are both fictional characters whose names contain the word “courage.” Taking these two figures as a starting point, artist Ru Kim imagines new entities that weave together animals, plants, and human and nonhuman life. These beings resist colonialism and anthropocentrism, dreaming of revenge against an oppressive order. To expose hierarchical structures, the artist juxtaposes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and instructor with that between a dog and its owner.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re invited to participate in a workshop, where they collectively

reconfigure the work through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erformance around the theme of “courage.”

[Reservation ↗](#)

A

SJ

C

TALK SERIES

Art Sonje Center presents a series of talk programmes in conjunction with *Spectrosynthesis Seoul*, featuring participating artists alongside sociologists, literary critics, and art historians. Bringing together the multilayered perspectives of artists and researchers, the programme expands the exhibition's discourse in a dynamic way.

B, BB, 3B, 4B, 5B..., *Political Landscape in a Curious Raven*

March 20

↗

4+1 Stories

March 20

↗

'Tender: Invisibly Visible Unlocatably Everywhere' Talk Series: *The Queer Politics of Vulnerability and Solidarity*

March 20

↗

Gauging and Misalignment: Body, Affect, and the Conditions of Judgment

March 28

↗

Trends in Queer Art Since the 2010s

April 9

↗

The Murmurs of Those Without History

April 16

↗

"Queer" Politics Constituting Sick Seoul (2026)

April 30

↗

The Conditions of Korean Queer Art

May 16

↗

Looking Out for Blind Spots

May 21

↗

Archiving the Hole: Archives of the Queer Community's Body and Affect

May 28

↗

Two Examples of Queering: The Paintings of Woosung Lee and Gyeongryeom Kim

June 11

↗

Porous Opacity in Queer Performance

June 18



Imagining the Flesh-side (Sal-gyeol)

June 25



클릭 시 해당 작품의 소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B, BB, 3B, 4B, 5B...,
POLITICAL LANDSCAPE IN A CURIOUS RAVEN
Min Yoon (Artist), Au Sow Yee (Artist)

Fri, March 20 at 12:00

Art Sonje Center

Language: Korean (Min Yoon)

English (Au Sow Yee, with Korean consecutive interpretation)

This program will be conducted in a relay talk format, where two artists present their respective practices within a 90-minute session. In this artist talk, Min Yoon will introduce his works—composed of fundamental art materials, responding to children’s books that have been restricted or banned in schools and librarie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alongside his early exhibition *Boys Be* (2013), which shares a cohesive context. Furthermore, He will present *Working Title: My Real Online Viewing Room* (2025), a documentation of his studio situation during the production of his latest works. Au Sow Yee’s artist talk revolves around the transformation of hidden “landscapes” in and around the Malay Archipelago, seen through the stories and journeys of a “curious raven,” a messenger between worlds.

4+1 STORIES

LEE Mingwei (Artist), Jongwoo Jeremy Kim
(Professor of Critical Theory and Art History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Fri, March 20 at 14:00

Art Sonje Center(In-Person)

Language: English (with Korean consecutive interpretation)

LEE Mingwei's participatory works and performances turn everyday gestures—mending, sweeping, and singing—into quiet invitations to trust, attention, and care. In this talk, LEE will share his practice—from early projects such as *Money for Art* to his iconic works *The Mending Project*, *Our Labyrinth*, and *Sonic Blossom*. LEE will be joined for a conversation by Jongwoo Jeremy Kim, PhD, Professor of Critical Theory and Art History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The program will conclude with an open audience Q&A.

'TENDER: INVISIBLY VISIBLE UNLOCATABLY EVERYWHERE' TALK SERIES: THE QUEER POLITICS OF VULNERABILITY AND SOLIDARITY

Jaewon Kim (Artist), Ibanjiha (Artist),
Yongwoo Lee (Curator/Professor,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Fri, March 20 at 16:00
Art Sonje Center
Language: Korean Only

This talk brings together two artists working across the realms of queer archives and the social body: Jaewon Kim and Ibanjiha. Ibanjiha constructs an “archive of survival” through *Staying Alive Here in South Korea 2025*, a large-scale history painting addressing martial law and resistance that visualizes the narratives of marginalized subjects. Jaewon Kim’s *Trace-bearing Beings and Body Temperature* explore the complex desires of queer communities and the sensory structures of biopolitics through cruising and HIV/AIDS discourse. This talk considers how their practices constitute queer temporalities and relationalities, and the politics of vulnerability and solidarity that emerge in the process.

*GAUGING AND MISALIGNMENT: BODY, AFFECT,
AND THE CONDITIONS OF JUDGMENT*

Muyeong Kim (Artist), Jimin Hah (Artist), Yeong Ran
Kim (Performance Researcher)

Sat, March 28 at 16:00

Art Sonje Center

Language: Korean Only

The judgment in sports and the diagnosis in medicine measure and categorize the body, establishing boundaries between the possible and the impossible. This talk traces the subtle “misalignments” that occur at the moments of gauging revealed in these two works. It discusses how the body and affect are produced and situated within conditions of judgment, and explores what modes of sensing and relations emerge in those gaps.

TRENDS IN QUEER ART SINCE THE 2010S

Nam Woong (Art Critic)

Thu, April 9 at 18:00–19:30

Art Sonje Center

Language: Korean Only

This program examines major curated exhibitions in Korea that have focused on queer themes since 2010. By questioning why 2010 serves as a starting point and why “queer art” remains a vital category, it explores the specificities and expansion possibilities of queer artistic practices attempted thus far. The session will discuss the tensions between recognition and antagonism, as well as the visible and the unrevealable. Furthermore, it delves into the temporalities of representation vs. anti-representation and narrative vs. non-narrative. By addressing the dynamics of the queer community and the pressing issues within the LGBTQ+ human rights movement, the program seeks to chart the future directions and possibilities of queer artistic practice.

THE MURMURS OF THOSE WITHOUT HISTORY

Seo Dongjin (Cultural Critic)

Thu, April 16 at 18:00

Art Sonje Center

Language: Korean Only

Someone asks, “Are you on this side?” And (s)he nods in response. Those living on “this side” have identified themselves in this way, creating the symbols, rituals, and ideas that bring them together as a distinctive social group. This has been both a reaction against discrimination and negation, and a practice of marking the pleasures and hopes embedded within their own lives. We trace the historical process from “homosexuality” (dongseong-yeonae) to Global Queer, and further to the Post-Queer. Along this path, we intersect the transformations of LGBTQ+ utopian politics with the trajectory leading from the Gay Liberation Movement to today’s identity politics. This exploration is an attempt to contemplate how deeply those who are deemed “without history” have actually been situated within the burden of history.

*“QUEER” POLITICS CONSTITUTING
SICK SEOUL (2026)*

siren eun young jung (Artist)

Thu, April 30 at 18:00

Art Sonje Center

Language: Korean Only

siren eun young jung’s new work, *Sick Seoul*—premiering at *Spectrosynthesis Seoul*—was inspired by the poem of the same title written in 1945 by poet O Jang-hwan (1918–1951). Much like his poetry, which captured the revolutionary affects and landscapes of the post-liberation era, this work asserts “queer” as a radical practice that advocates for contemporary resistance and politics, bridging the concepts of “insurgency” and the “public square.” In this session, the artist will introduce the process of constructing the various layers surrounding her work, further attempting a critical reading of the ontology and politics of queer art.

THE CONDITIONS OF KOREAN QUEER ART

siren eun young jung (Artist),
Yang Seungwook(Artist), Nam Woong (Art Critic),
Yeomyeong Kim (Curator)

Sat, May 16 at 15:00

Art Sonje Center

Co-hosted by: Art Sonje Center,

Korean Association for LGBTQ+ and Queer Studies

Language: Korean Only

This roundtable scrutinizes the specific conditions and constraints under which Korean queer art is produced, exhibited, and critiqued. While South Korea's image as a "global cultural powerhouse" invites international expectations of liberal inclusivity, the local reality tells a different story. Contrary to these external anticipations, queer art in Korea is shaped by restrictive factors: the specific nature of exhibition spaces, rigid public funding criteria, practices of censorship and self-censorship, and the limitations of critical language. Moving beyond abstract theory, this program focuses on the tangible mechanics of the scene—how works are staged, which elements are excised, and which contexts are lost in translation. We aim to expose the contemporary operational conditions of Korean queer art often obscured behind the polished veneer of "Global Korea."

LOOKING OUT FOR BLIND SPOTS

Inhwan Oh (Artist)

Thu, May 21 at 18:00

Art Sonje Center

Language: Korean Only

In 2014, the artist defined his artistic practice—distinguished from art as an expression of an autonomous subject—as a “looking out for cultural blind spots.” This involves exploring an alternative realm where othered lives and desires, which are not permitted by the dominant culture, can be realized. In this talk, we will revisit various projects conducted over the past 30 years from the perspective of “looking out for cultural blind spots,” and examine how the artist’s work has sought the possibilities of marginalized senses and existence.

*ARCHIVING THE HOLE: ARCHIVES OF THE
QUEER COMMUNITY'S BODY AND AFFECT*

Minyoung Park (Artist / Full-time Activist at
Chingusai), Dae Hyun Kim (Historian),
Hyejin Oh (Literary Critic)

Thu, May 28 at 18:00
Art Sonje Center
Language: Korean Only

The “newsletters” consistently produced by que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can be read as a form of sculptural record and an archive of queer affect. Composed of diverse materials—including oral interviews, texts, photographs, and videos—this archive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the concrete and physical body of the forthcoming queer community. This program explores the political and aesthetic significance of recording the bodies and histories of minorities through the keywords: “queer, human rights movement, community, and archive.”

*TWO EXAMPLES OF QUEERING: THE PAINTINGS
OF WOOSUNG LEE AND GYEONGRYEOM KIM*

Thu, June 11 at 18:00
Art Sonje Center
Language: Korean Only

As a painter, when and how am I queer? Let us begin by deliberately revisiting the age-old dichotomy of context-content and composition-form. This is a journey through the countless fissures, possibilities, and lines of flight that exist between a queer life and the queer composition of the canvas.

*POROUS OPACITY IN QUEER PERFORMANCE:
RU KIM AND DONG-HYUN LEE*

Ru Kim (Artist), Lee Dong-hyun (Artist), Soo Ryon
Yoon (NRF Academic Research Professor at
Sungkonghoe University)

Thu, June 18 at 18:00
Art Sonje Center
Language: Korean Only

What do audiences want from queer performance? Or, what does queer performance want from its audience? Lee Dong-hyun and Ru Kim interrogate the contradictory dynamics of power and vulnerability within the exteriority and interiority of gendered and racialized bodies through a mix of movement, camera works, electronic music, and moving image. Through this approach, Lee and Kim ask how performers create tensions, exchange gazes, and share affective responses with viewers. The result is a shift in the established sociality shared between the performer(s), the audience, and the exhibition space, a process through which the exhibition space reconfigures itself into a new affective topography. In their artist talk, Ru Kim and Lee Dong-hyun discuss their new performance pieces, reflecting on how this porous opacity renders their performance queer, and how they understand performance as an important form, methodology, and mode of visual politics within their oeuvre.

IMAGINING THE FLESH-SIDE (SAL-GYEOL)

Jeong-ui Yun (Artist), Ho Huh (Artist), Sanghyun Ha
(Curatorial Assistant, Art Sonje Center)

Thu, June 25 at 18:00
Art Sonje Center
Language: Korean Only

In the private space of the studio, Jeong-ui Yun has explored the sensual gaze directed toward the body and fragmented sculptural forms that transform over time. Ho Huh focuses on places where people gather outside of “normal” communities, carrying the sexual and emotional experiences found there onto the “skin-texture (sal-gyeol)” of his paintings. Through cut, ruptured, and intertwined flesh, the two artists imagine the self and the other, as well as relationships and forms of commonality. Just out from their private closets, their imagination of the other is not ideal. Instead, it appears somewhat “queer,” repeatedly wounding one another, only to return to their solitary spaces. This talk will explore how the desire for particular bodies and other people—as it appears in the works of the two artists—is transformed into the materiality of sculpture and painting. Furthermore, the conversation will explore how they imagine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beginning with the most basic unit—the “a piece of flesh”—and how they encounter failure within those relationships.

Spectrosynthesis Seoul
March 20 – June 28, 2026

Organized by Art Sonje Center with Sunpride Foundation
In Collaboration with Space for Contemporary Art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Curated by Sunjung Kim with Youngwoo Lee

Exhibition Construction: Shampoo
Installation: Dasan Art, Shampoo
Media Equipment Installation: Multitec, The Gadget
Vinyl Installation: Namu Communication
Logistics: Dasan Art, Brink's Global Services
Korea Ltd., Jueun Art, Hankook Art
Condition Check: artC&R
Graphic Design: WORKS
Communications: wh-bn
Photography: Seowon Nam
Video: Euirock Lee

Art Sonje Center
Artistic Director: Sunjung Kim
Head of Exhibitions: Heehyun Cho
Assistant Curator: Seowon Nam
Curatorial Assistant: Sohyun Kim
Head of Operations: Misun Lee
Educator: Hyeonmi Kim
Assistant Educator: Yunji Kim
Facilities Management Division: Hyun Sung Moon, Jae Il Yun
Intern: Clarisse Verbeek

Sunpride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 Patrick Sun
General Manager: Emmanuel Tsuwan Hsieh
Program Manager: Li Qi
Project Coordinator: Harry Ho Yin Leung
Content Coordinator: Sean Chang
Event Manager: Rocky Foo
Registrar: Connie Wong

Space for Contemporary Art
Chief Executive Officer: Sooyoung Choi
Manager: Mikyung Lee
Curatorial Assistant: Sanghyun Ha